

# 식품산업 현황 및 정부정책

## Korean Food Industry and Government Policy

노수현  
Suhyon Rho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  
Food Industry Policy Division,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 I. 서 론

우리나라 식품산업 정책에서 2008년은 큰 전환점이 된 해이다. 2008년 2월 정부 조직이 새롭게 개편되면서 기존 농림부의 농업, 농촌 정책과 해양수산부의 수산 정책이 합쳐지고, 식품산업 진흥이 새로운 정책 과제로 부각되어 '농림수산식품부'가 출범한 것이다. 이러한 정책 전환의 배경에는 농어업 문제를 식품을 매개로 해결하려는 정책 의지도 반영되어 있다.

2012년은 정부가 식품산업 육성 및 진흥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지 다섯 번째가 되는 해이다. 그동안 정부는 식품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구축하는데 주력하였다. 2008년에는 식품산업 진흥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고, 동년 6월 식품산업진흥법 시행 및 11월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대책인 '식품산업발전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로써, 식품산업이 농어업과 함께 동반 성장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2010년 2월에는 식품산업을 2020년까지 매출액 260조원, 고용 212만명을 담당하

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농림수산식품·농산어촌 비전 2020'을 발표함으로써 우리나라 식품산업이 세계로 도약하려는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2011년 9월에는 '식품산업발전종합대책'과 '농림수산식품·농산어촌 비전 2020'과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기 위해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식품산업 육성 및 진흥을 위해 식품산업 인프라 구축, 농어업과의 연계강화, 글로벌 경쟁력 강화, 소비자 정보제공 및 보호 등 4대 분야 23개 정책과제를 집대성한 것이다.

식품산업을 고부가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앞으로 해야 할 것이 많이 남아 있다. 우선 국내의 식품산업 현황 및 우리나라 식품산업의 당면과제를 살펴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발표한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

Corresponding author: Suhyon Rho  
Food Industry Policy Division,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94 Dasom 2-ro, Sejong-si 339-012 Korea  
Tel: +82-44-201-2111  
Fax: +82-44-868-7907  
E-mail: rho@korea.kr



## 2. 식품산업 현황

### 1) 세계 식품시장 현황

세계 식품시장 규모는 2009년 4.9조 달러에 이어 2010년 5조 달러 시대에 접어든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sup>1)</sup>. 이것은 2009년 기준으로 식품시장이 IT 시장 3.5조 달러, 철강 시장 0.5조 달러에 비해 약 1.4~10 배 큰 시장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식품시장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세계 식품시장은 향후 연평균 3.6% 성장하여 2012년에는 5.4조가 달러, 2015년에는 6조 달러가 될 것이라는 추정 결과가 있다. 이러한 추세가 이어진다면 2020년에는 6.4조 달러가 될 것이다.

세계 식품시장을 유럽, 아시아-태평양, 북미, 중남미, 중동-아프리카로 구분해 보면 아직까지는 유럽의 비중이 여전히 크지만 2008년 이후 유럽 시장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반면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매년 5.7%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추세에 따르면 2020년에는 세계 식품시장의 약 40%가 아시아-태평양 시장에서 형성될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앞으로 약 10년 후에는 동북아 경제공동체가 형성되어 서울을 기점으로 반경 2천km 이내에 EU 인구의 3배인 14억5천만명의 인구나 비행거리 2시간 이내에 인구 1백만명 이상 대도시가 60개 이상이 모여 있는 거대한 식품시장이 자리잡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 2) 국내 식품시장 현황

종사자 수 10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통계청 경제총조사에 따르면 2010년 기준 국내 식품시장은 133조원 규모이다. 이것은 음식료품 제조업 65조원과 음식점업 68조원을 합한 것으로 음식료품 제조업이 전년 대비 7.6% 성장한 반면 음식점업은 전년 대비 3.3% 감소하여 전체적으로는 2009년 대비 1.8% 성장한 것이다.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성장 추이를 살펴보면 국내 식품산업은 최근 10년간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001년 70조원이었던 국내 식품산업은 10년간 약 63조원이 증가하여 89.1% 성장하였다. 이것은 식품산업 전체적으로는 연평균 7.4% 성장한 것으로 분야별로는 2001년 36조원이었던 음식료품 제조업이 매년 6.9% 성장했고, 음식점업은 2001년 34조원에서 연평균 8.1% 성장한 셈이다.

### 3) 식품산업 발전의 장애요인

국내 식품산업은 외형적으로는 크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매출액 기준 1조원 이상 대기업은 2007년 8개 기업에서 2010년 15개 기업으로 크게 늘어났다. 하지만 대다수 식품 기업 및 외식업체는 영세한 규모에 머물러 있다. 2010년 통계청 경제총조사에 따르면 전체 음식료품 제조업체 5만4천여개 중에서 종사자 수 10인 이상 사업체는 4269개로서 7.9%에 불과하고 나머지 92.1%는 종사자 수가 10인 미만인 영세한 업체이다. 음식점업 사업체 수는 2010년 59만개로 종사자 수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는 91.3%에 이르고 1개 사업체당 매출액은 115.2백만원, 종사자 1인당 매출액은 41.9백만원에 불과하다.

소규모 영세기업 위주의 취약한 산업구조로 인하여 식품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필수적인 R&D 투자는 미흡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2009년 한국식품과학회 전문가 검토 결과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식품기술 수준은 전체적으로 선진국 대비 30~65% 수준에 불과하고, 분야별로는 식품가공 분야, 품질관리 분야는 상대적으로 높으나 소재개발을 위한 물질탐색, 품질측정, 유통환경은 선진국과 격차가 크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식품산업 종사자 수 178만명에 비해 산업체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인재양성 인프라는 미흡한 실정이다. 식품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본격적인 식품산업 전문 교육은 2009년 891명을 시작으로 2010년 1267명, 2011년 1245명, 2012년 3180 등 매년 늘어나고 있으나 아직은 부족한 실정이다.

식품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식품분야 핵심 원

1) 세계 식품시장 매출액(Datamonitor 추정) : ('02) 3.3조달러 → ('09) 4.9

천기술 및 전문인력 확보 뿐 아니라 식품관련 통계·정보관리 등 기본적인 정책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또한, 글로벌 식품기업을 육성하여 식품산업 발전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구심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 3. 식품산업 진흥정책 주요내용

농림수산식품부는 2011년 9월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나라 식품산업 진흥을 위한 중장기 계획으로 농어업을 견인하는 글로벌 식품산업 육성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2017년까지 식품산업 매출액 245조원, 농식품 수출액 200억 달러, 식품분야 고용 200만명 목표 달성을 위한 식품산업 인프라 구축, 식품산업과 농어업의 연계 강화, 글로벌 경쟁력 제고, 소비자 정보제공 등 4대 분야 23개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2012년은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실천하는 첫 번째 해이다. 무엇보다 식품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R&D·수출지향형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동북아 식품산업의 허브로 육성하고, 식품산업을 고부가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R&D 투자를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2010년 183억원이었던 식품 R&D 예산이 2012년에는 290억원으로 확대되었고 늘어난 R&D 예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R&D 지원 방식을 공급자 위주에서 식품기업 등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식품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전문교육 기관 지정 및 기관별 목표 관리제를 도입하여 2017년까지 전문인력 10만명을 교육할 계획이다.

식품산업과 농어업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별 특산물을 기반으로 하는 복수 시군단위 식품클러스터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농어업과 중소기업의 융복합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육성 정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그 밖에 우수 식재료 소비촉진, 외식산업 육성, 품목별 가공산업 육성 등의 정책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4. 과제별 주요내용

#### 1) 식품 R&D 확대

농림수산식품부 출범('08.2)과 함께 식품산업진흥 정책이 본격 추진되면서 기존의 농림기술개발사업에서 식품 부문을 분리·확대하여 183억 규모의 식품기술개발사업을 신설('10.1)하고 '12년 290억원까지 확대했다. 기존의 농업생명 R&D의 틀에서 벗어나, 고부가 식품분야의 독자적인 R&D 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식품 분야를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중요한 정책 수단을 마련한 것이다.

2010년에는 총 138개 과제에 183억원, 2011년에는 총 175과제에 248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12년에는 이전에 선정되어 연구중인 122개 계속 과제에 199억원과 상반기 신규 과제에 39개 과제를 선정하여 63억원을 지원하였다. 2012년 상반기에는 지정공모와 자유응모 과제로 구분하여 신규과제를 선정하였다. 지정공모 과제는 선진국 기술 수준에 근접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기술 개발을 목표로 젊고 의욕적인 전문가로 ‘식품 R&D 기획단’을 구성하여 ‘수입에 의존하는 식물성 유지 대체소재 개발’, ‘가공공정 개선에 의한 나트륨 저감화 기술’ 등 12건의 지정공모과제를 도출하였다. 지정공모 과제에는 30개 연구기관이 응모하였으며 공개경쟁을 통해 최종 선정하였다. 자유응모 과제는 연구기관에서 자유롭게 응모하는 과제로서 221개 과제가 접수되었으며 제품개발로 인한 매출증가 효과와 기술 수준 향상, 관련 산업 파급효과 등을 기준으로 외부 전문평가단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27개 과제와 연구기관을 선정하였다. 모든 연구과제는 식품기업의 참여를 필수화하여 단순한 기술 개발에 그치지 않고 실제 상품화를 통해 부가가치와 소비자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다.

#### 2) 국가 식품클러스터 조성

우리나라도 동북아 식품시장의 허브 육성을 위해 식품기업, 연구소 등이 집적된 국가식품클러스터(푸드폴리스)를 '15년까지 전북 익산지역에 조성할 예정이다.



푸드폴리스에는 발효식품, 고부가 기능성식품, 천연첨가물 등 소재식품, 기호식품을 중점 유치하여 한국형 고부가 식품산업의 메카로 육성해 나가며, 식품산업의 신제품개발(이노베이션)과 수출을 통해 클러스터 효과가 외부로 확산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총 5,535억원을 투입하여 232만㎡(70만평, 여의도 4/5) 규모의 고부가가치 창출형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단지내에 입주하는 국내외 노동인력 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126만㎡(38만평) 규모의 배후도시를 구축하는 등 연구·산업단지 및 주거기능을 집적화한 식품산업문화도시를 건설해 나갈 계획이다.

'12.6월말에는 국토해양부로부터 국가산업단지로의 개발이 승인되었으며, 정부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거쳐 국가식품클러스터 종합계획(마스터플랜)을 확정('12.7.27)한 바 있다. 2012년 8월까지 국내 40개소, 해외 14개소 등 총 54개의 기업체·연구소 등과 투자유치 MOU를 체결하는 등 식품전문 단지조성과 기업유치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 3) 외식산업 육성

2010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외식산업 매출액은 67.5조원으로 국가전체 산업의 1.6%, 고용은 161만명으로 전체 고용의 9.1%를 차지하는 등 산업 중요성도 매우 크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에서는 외식산업 진흥 및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외식산업진흥법」을 2011년 9월부터 시행하고,「외식산업진흥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외식산업 육성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본 기본계획은 외식산업을 2016년까지 매출 125조원, 고용 170만명, 해외진출 외식업체를 2,500개소를 가지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인프라 확충, 경쟁력 강화, 고부가가치 창출의 3대 전략 추진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외에도 외식·전처리업체에 국산 식재료 구매자금을 용자 지원하고 사이버거래소(aT)에「외식 식재료 전문몰」을 운영하는 등 국내 농어업과 연계를 강화하여 안정적인 농수산물 소비기반 확충과 농어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이다.

### 4) 농식품 수출 확대

농식품 수출은 '07~'11년까지 4년 만에 두 배 증가한 77억 달러를 달성하였다. 과거 2~30억불 수준에서 오랫동안 주춤하던 수출은 '07년 40억불 돌파 이후 높은 증가세를 보였으며, 특히 '11년에는 글로벌 재정위기 등 대외경제 악화에도 불구하고, 주력품목의 호조세와 적극적 마케팅 활동을 통한 한국산 경쟁력 제고로 전년대비 약 18억불이 증가하였고, 수출증가율은 30.8%에 달해 사상 최고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부류별로는 가공식품이 수출 확대를 주도(44억불, 수출비중 57%)하는 가운데 신선농산물은 사상 최초로 10억불을 달성하고, 수산물 수출도 '06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로 최초로 23억불을 달성하는 등 농식품 수출 품목의 전반적 호조세를 보였다.

\* 농식품 수출액 : ('80) 19억달러 ...> ('07) 38 → ('08) 45 → ('10) 58.8 → ('11) 77

또한, 1억불 이상 수출 품목도 '07년 라면, 오징어, 설탕, 참치, 껌, 커피 등 6개에 불과하였으나, 4년동안 인삼, 김, 음료, 김치, 제3맥주, 소주가 추가되어 12개로 늘었다.

시장별로는 일본 중심의 수출에서 지속적인 수출시장 다변화가 되고 있다. 1억불 이상 수출국이 '07년 8개 국가에서 '11년에는 11개로 늘었으며, 특히 중국과 아세안은 최근 4년간 연평균 수출 증가율이 30%를 상회할 정도로 농식품 수출이 급증하였다. 중국·아세안에는 고소득층을 겨냥한 고품질 농식품 시장을 목표로 수출되는 것도 주목할 만한 사항이다.

현재 한국 농식품 수출은 일본, 미국 등 기존시장에서 신규시장으로 다변화되고 있는 변곡점에 위치하고 있다. 수출 주력시장은 한국과 식문화가 유사하고 근 거리에 있는 일본, 중국(동부연안), 미국(교포중심 시장) 등 3개국이 전체 수출액의 53%('11) 차지하고 있으나, 이들 시장에서 한국 업체간 과당경쟁 발생, 저가수출로 인한 품질저하, 현지업체와의 가격경쟁 등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농식품 수출이 한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중국·미국의 현지시장 진출, 러시아·EU·중동 등 적극적 신규시장 개척이 긴요하다.



### 5) 한식 세계화 추진

한식은 건강식으로 영양학적 우수성, 다양한 식재료와 조리법 등을 지니고 있어 세계화 가능성이 높다. 음식의 세계화는 국가 이미지 제고 및 식재료 수출, 관광객 유치 증가 등의 경제적 부가가치와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되는 분야이다. 최근 한류 열풍 등으로 인해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 이를 잘 활용할 경우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2009년 4월 “한식을 전 세계인의 식탁에 올린다”는 비전을 설정하고 「한식세계화 5대 전략」을 마련하여 9대 중점과제를 확정하고 국내외 홍보 및 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지난 3년동안 한식세계화 5대 전략을 추진한 결과, 미국 등에서 한식에 대한 선호도가 크게 상승('09 : 9% → '11 : 41%) 하였고, 일본 및 미국의 해외 한식당 중 4곳이 미슐랭 가이드에 등재되었으며, 세계 최고의 美食축제 “마드리드퓨전 2012”에 주빈국으로 참여하여, 환영만찬에 한식을 소개하여 극찬을 받았다. 또한, 국내 외식업체의 해외진출('08 : 27업체 / 109점포 → '11 : 37 / 210)과 농식품 수출('08 : 45억불 → '11 : 77)이 증가되는 등 한식세계화 사업에 대한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지금까지 한식세계화 초기 붐 조성과 기반조성을 바탕으로 한식당의 해외진출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 한식당의 해외진출을 위한 컨설팅, 교육 등을 실시하고, 해외 현지 한식당 협의체를 통해 한식당 수준 향상을 위한 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해외에서 인지도가 높은 품목 중심으로 파급 효과가 높은 지역에 역량을 집중해서 본격적인 한식의 해외진출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한식 전문가 양성을 위한 ‘한식조리 특성화학교’를 늘리고, 해외 요리학교 한식강좌도 동남아 지역 요리학교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K-pop 등 한류와 연계하여 한식과 문화를 접목하는 협력사업을 강화하고, 한식의 본격적인 해외진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 6) 전통발효식품 육성

우리나라 전통 발효식품 산업의 규모는 약 4조 7천억 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식품산업 전체 시장규모(133조원)의 4% 정도에 해당된다. 우리의 전통 발효식품은 영양학적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한식의 우수성에 문화를 접목해 세계적인 음식으로 발전시킬 수 있고, 국내 농수산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특화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유망산업으로 농어가 소득향상과도 직결되는 산업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우리나라 대표식품으로서 성장잠재력이 높고 웰빙 트렌드에 부합하는 김치·장류·천일염·전통주 등 전통·발효식품산업의 육성 정책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우선 전통발효식품의 품질개선·기능규명·R&D 투자확대 및 생산시설 현대화 등 기초 인프라를 확충 및 홍보·마케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치산업 육성을 위한 ‘김치산업 진흥법’을 제정·시행('12.1월)하였고, 또한 김치의 세계화 및 김치산업육성을 위해 김치 R&D, 브랜드·홍보, 전문인력양성 등의 다목적 기능을 수행하게 될 ‘세계김치연구소’를 ‘한국식품연구원’의 부설기관으로 설립하고 '12년 10월 중순경 연구소 건립을 완공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천일염은 다른 나라 소금에 비해 비만의 주범인 염화나트륨 성분이 낮고, 칼륨 등 미네랄 성분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최근까지 식품이 아닌 광물로 취급받아 산업적 발전 기반이 미흡하였다. 정부는 천일염 발전을 위해 염전시설의 현대화 및 조직화·규모화를 통한 기초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으며 천일염의 부가가치 제고와 위생·안전관리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소금산업진흥법을 '12.11월 시행할 예정이다.

2010년 국내 술 시장 규모는 출고가 기준으로 약 8조원 규모로 막걸리 포함한 전통주는 전체 술 시장의 11% 수준이다. 정부는 그동안 침체되었던 우리 술 산업을 활성화하여 품질 고급화 및 세계화를 위해 「우리 술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09.8.26)하고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10.8.5 시행)하여 우리술 산업진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2012년 6월 우리술 산업의 인적 인프라 확충 및 저변 확대를 위해「우리술 전문인력 양성기관, 2곳과「우리술 교육훈련기관」7곳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경영 및 기술애로가 있는 전통주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여 생산성 향상 및 전통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 7) 소비자 정보제공 및 보호

최근 패스트푸드 위주의 서구식 식생활 및 수입식품의 확산으로 식(食)과 농(農)이 괴리되어 농식품 산업 발전과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식생활 교육을 적극 지원하는 정책도 추진 중에 있다. 2009년 5월 식과 농의 연계를 통한 전통 식생활 계승·발전, 지역 농수산물 소비촉진, 환경친화적인 식생활 교육 전개 등을 골자로 하는「식생활교육지원법」이 제정되었다. 동 법에 따라 2010년 4월 민·관 공동의 '국가식생활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5년간의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로써, 저탄소형 올바른 식생활을 위한 범정부적 지원체계를 구축하였다.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의 비전, 목표, 추진전략은 다음과 같다. 한편, 식생활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기관과 단체, 저명인사 등이 참여하는 민간 중심의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가 2009년 12월 발족함에 따라, 민간이 주도하는 맞춤형 식생활 교육을 범국민운동으로 전개할 수 있게 되었다. 정부도 민간의 식생활 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녹색 식생활 지침 보급, 식생활 교육기관 및 우수 농어촌 체험공간 지정·운영, 녹색 식생활 홍보 등 식생활교육 기반 구축을 중점 지원 중에 있다.

특히, 녹색식생활의 범국민 활성화 및 생활속 실천 확산을 위해 "녹색식생활교육박람회"를 2011년 및 2012년 등 두차례 개최하였다. 이론적인 식생활 교육의 틀을 넘어 다양한 체험 및 참여 이벤트 등을 통해 식생활 교육 체험 콘텐츠 개발 및 확산에 기여하였으며 이를 통해 2011년에 15천명에 이어 2012년에는 23천명의 관람객 참석 등 녹색식생활 확산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

## 5. 제빵산업 및 정부정책

### 1) 제빵산업 현황

2009년 기준 제빵시장 매출액은 3조3천억원으로 전년대비 21.6% 크게 성장하였다. 소비자 식생활 변화로 당분간 베이커리 시장은 지속 성장할 전망이다. 식생활이 다양화되고 편의를 추구하면서 쌀 소비량은 줄어드는 반면 쌀 대체식품인 빵류, 떡, 라면류, 즉석밥, 찌리얼 등의 소비는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 조사결과에 따르면 2인이상 가구 대상 식료품 지출액 중 빵류에 대한 지출액은 최근 6년간 연평균 6.7% 증가하여 2004년 12,425원에서 2010년 19,145원으로 6,620원 늘어났다. 다만, 주요 소비층인 청소년 그룹의 섭취빈도 감소 및 인구 구성비 감소는 제빵 시장 성장에 장애 요인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건강과 안전을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에 따라 웰빙형 재료, 국산 재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호밀, 흑미 등 곡식류, 호두, 해바라기씨 등 견과류가 들어간 제품이 호응을 얻고 있고 우리 밀, 우리 쌀 등 국산 원료에 대한 선호가 커지고 있으며 업체는 다양한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브런치를 즐기는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기존 take-out 형태의 베이커리가 카페 컨셉의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고, 브런치용 식빵, 팬케이크, 토스트 등 새로운 제품 개발과 함께 샌드위치 매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한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주요 재료의 가격 상승으로 업계 원가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제과빵 원재료는 종류마다 차이가 있으나 주로 밀가루, 설탕, 계란, 유지 등이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대부분 수입산을 사용하고 있고 밀, 원당 등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계란, 분유의 국내 수급 불안으로 원가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 2) 정부정책 방향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소비자 트렌드에 맞추어 다양한 제품개발이 필요하다. 정부는 식품분야 R&D를 확대하여 식품산업 발전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제

빵산업과 관련하여 “우리 밀의 제빵 품질 향상 및 기능성 신제품 개발”, “한국 토종 효모자원의 기능성 소재를 활용한 특화 제과 사업화” 등의 기술개발 사례가 진행되고 있다. 향후 베이커리용 생지의 고급화 기술, 베이커리 제품의 유통기한 연장을 위한 가공공정 개선 기술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제 곡물가격 상승으로 인한 원가부담 가중이 국내 식품산업 공통의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정부는 해외 농장 개발을 통한 식량 자주율 제고와 해외 곡물회사 설립을 통한 원료수급 안전망 확충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제빵용 국산밀 품종개발, 재배확대 등을 통해 식량 자급률과 국산 원료 공급능력 제고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식품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인프라 확충을 추진하고 있고 식품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농식품기업지원센터를 만들어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식품 기업의 원료 매입자금, 시설 현대화에 필요한 자금 지원제도도 운영 중이다. 국산 베이커리 제품의 수출확대와 관련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정책도 적극 추진 중이다.

## 6. 맺음말

지금까지 식품산업 현황 및 정부정책, 그리고 제빵 산업에 대해 설명하였다. 앞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식품산업은 정체되어 있는 우리나라 농어업을 견인해 나갈 성장산업으로 발전해 나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이 있다. 소규모 식품기업 위주의 영세한 산업구조를 가지고는 글로벌 경쟁의 파도를 헤쳐 나가기 어렵다. 우리나라 식품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는 연구개발, 인력양성 등 기본적인 산업 인프라를 튼튼하게 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농식품 수출 확대와 한식세계화를 꾸준히 추진하고 식품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통해 우리 농어업도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식품산업이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하여 소비자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